15. ??? ???? ????

채권을 구매하려고 보면 회사와 채권의 신용등급 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.
신용등급은 채권을 발행한 기관 또는 회사가 그 채무를 상환할 능력을 가늠하는 지표이면서 , 가산금리가
얼마로 책정되는지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. 문제는 경제상황은 끝임없이 변하는데 이 신용등급이
영원히 유효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실제로 이 등급이 언제까지 유지되는지 궁금했습니다 .

??? ????(????)

회사의 신용등급은 최종 재무제표 결산 기준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. 만약 최종 재무제표가 완성되고 등급을
매긴 시점이 재무제표가 완성된 날부터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완료일로부터 1년까지 유효 하다고
합니다 . 하지만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재무제표 결산 기준일로부터 18개월로 적용 합니다 .

즉 최종 결산재무제표로 평가를 받았을 경우 6월 30일 이전에 받은 평가등급은 유효기간이 12개월이며 , 6월
30일 이후에 받은 평가등급은 그 다음 년도 6월 30일 까지 입니다 .

하지만 그 해에 신설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말결산에 대한 결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결산 기준일에 상관 없이
평가유효기간은 무조건 1년이 됩니다 .

??? ????(????)

채권 신용등급은 조금 상황이 다른데 , 채권 신용등급의 유효기간은 회사의 신용등급 평가일로부터 채권의
만기 또는 소멸 (등급취소 포함)시까지 라고 합니다 . 이때 채권의 만기라고 하는 것은 투자자 모집 및
발행시점에 결정된 만기까지라고 합니다 .
그리고 기업어음 및 전자단기사채 신용등급의 유효기간은 신용등급 평가일로부터 , 평가기준 사업연도의
다음 사업연도 종료일 6개월까지 라고 합니다 .

다시말해 채권의 신용등급은 채권이 발행된 해의 회사 신용등급을 가지게 되며 이 지속시간은 투자자들이
채권을 사고 채권이 만기상환될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. 또한 기업어음 및 전자단기사채의 신용등급은 회사
신용등급을 평가한 해로부터 다음해 6월 30일 (다음 사업연도 종료일 6개월 전)까지 입니다 .

????? ??

신용등급의 유효기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, 지난해 초에 A- 등급을 받은 회사가 채권을 발행한 후 , 다음해
BBB+가 되어도 실제 채권의 만기가 되지 않았다면 채권 자체의 등급은 A-를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. 여기서
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. 무슨 말이냐 하면 채권 자체의 표면 등급은 높지만 실제 빚을 갚아야 하는
회사의 신용등급은 떨어졌으니까요 . 만약 우리가 장내채권을 매수하고 있다면 잽싸게 팔아 치워야 하는

상황이지만 장외채권을 산 경우에는 꼼짝없이 BBB+ 채권을 싼 금리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. 그리고 위험도가 매우 증가하는 것이구요.

결국, 만약 여러분이 1년 이상의 채권을 구입하셨다면 매년 해당 회사의 신용등급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.

Revision #1
Created 2024-03-11 12:50:53 UTC by Enigma
Updated 2025-06-26 22:46:40 UTC by Enigma